

2023. 10. 1.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사무엘상 1 Samuel 7:15-8:3

제목: 사사 사무엘과 아들들

설교 30 분, 14 페이지, p10-23-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7:15 사무엘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ESV) 7:15 Samuel continued as Israel's leader all
the days of his life.

7:16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7:16 From year to year he went on a circuit from
Bethel to Gilgal to Mizpah, judging Israel in all
those places.

7:17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의 제단을 쌓았다.

7:17 But he always went back to Ramah, where his home was, and there he also held court for Israel. And he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8:1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8:1 When Samuel grew old, he appointed his sons as Israel's leaders.

8: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8:2 The name of his firstborn was Joel and the name of his second was Abijah, and they served at Beersheba.

8:3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8:3 But his sons did not follow his ways. They turned aside after dishonest gain and accepted bribes and perverted justice.

들어가는 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좋은 환경이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때 세 번이나 이사해서 찾은 좋은 환경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세 번씩이나 이사하는

부모의 열정이 중요한 걸까요? 환경도 중요하고 부모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장 중요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습니까? 사랑과 돈 중 어느 것을 더
 받으셨습니까? 공부 잘해서 칭찬받으셨습니까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으셨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
 야단맞을 때에도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었습니까?
 작은 잘못에 걱정적이고 파괴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부모였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일방적인 잔소리나
 강요, 폭언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분입니까?

사사 사무엘과 아들들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 사무엘과 사사 요엘과 아비아입니다.

✓ 다른 행동, 다른 평가, 다른 인생

◆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공의로운 사사 사무엘

보통 사사는 한 지역, 한 장소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들이 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7:16 절. 사사 사무엘은 매년 벰엘, 길갈,

미스바를 돌면서 이스라엘의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7:16 그는 해마다 벰엘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7:16 From year to year he went on a circuit from Bethel to Gilgal to Mizpah,
judging Israel in all those places.

7:17 절. 그리고 집(라마)로 돌아온 후에도 거기서도
사람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훈련받은대로
그곳에서 제사까지 주관했습니다.

7:17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의 제단을 쌓았다.

7:17 But he always went back to Ramah, where his home was, and there he also
held court for Israel. And he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 **돈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사사
요엘과 사사 아비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 공의로운 사사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8:1 절.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웁니다.

8:1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8:1 When Samuel grew old, he appointed his sons as Israel's leaders.

2 절. 사사 요엘과 사사 아비아는 브엘세바에서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사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8: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8:2 The name of his firstborn was Joel and the name of his second was Abijah, and they served at Beersheba.

3 절.

**8:3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8:3 But his sons did not follow his ways. They turned aside after dishonest gain and accepted bribes and perverted justice.

아버지는 신실하고 공의로운 사사였지만, 아들들은 돈만 밝히고, 뇌물을 좋아하고, 사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편향적이고 치우친 판결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신실하고 공의롭다고 아들이 다 신실하고 공의로울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습니다.

환경, 특히 부모가 자녀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사무엘이 요엘과 아비야보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부모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다른 환경이 다른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즉, 사무엘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무엘이 부모로부터 더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출발점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엄마가 같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젖떼던 시기(3-5 세)부터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지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필요할 때마다 옷을 챙겨 주는 엄마 옆에서 돌봄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1 년에 한번 새 옷을 준비해온 엄마를 잠깐 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에게는 자주 출장을 가긴했지만, 아빠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사무엘은 1 년에 1 번 아빠를 볼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결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장하며 사춘기 즈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무엘에게는 부모가 옆에 없었고, 요엘과 아비야에는 일중독에 가까운, 너무 바쁜 아버지, 그리고 함께 하는 어머니가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의 성장 환경이 결코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보다 좋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 핑계 대며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 손해본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형만큼만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았더라면...

그때 아빠 사업이 망하지만 았았더라면...

아빠가 조금 더 따듯한 사람이었더라면...

부모님이 그때 이혼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그 사고, 그 부상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건, 그 일, 그 때 망가지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큰 변화일 뿐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 사건,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환경, 그런 부모의 부재 아래에서도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선택한 겁니다. 결국 사무엘의 삶과 요엘과 아비야의 삶이 다른 것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환경이 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환경 중에 부모는 가장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똑 같은 부모, 똑 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삶의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정의로운 삶(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제물을 도둑질하고, 성막을 섬기는 여자와 동침하고, 아버지의 책망도 무시하던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의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성막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어른들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공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삶의 방향을 선택했을 겁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인사를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2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지도하여
왔다.**

1 Samuel 12:2 Now you have a king as your leader. As for me, I am old and gray, and my sons are here with you. I have been your leader from my youth until this day.

**12:3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12:3 Here I stand. Testify against m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his anointed. Whose ox have I taken? Whose donkey have I taken? Whom have I cheated? Whom have I oppressed? From whose hand have I accepted a bribe to make me shut my eyes? If I have done any of these things, I will make it right."

사무엘이 평생 얼마나 애쓰며, 순간 순간을
선택했는지 보십시오. 5 살때부터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성막에서 키워진 아이, 자라며 사랑이 고프 때 사무엘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느꼈을 공허감과 불안은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을 겁니다. 그가 어머니의 기도로 나실인으로 드러진 것은 사무엘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정결하고 멋진 나실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2:22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1 Samuel 12:22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because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you his own.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나이 늙어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는 사무엘은 그의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정의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과거의 넘고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릭워렌 목사는 이런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부른 겁니다. 사무엘이 혹시 자기의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억압받은 일이 있다면 갚아주고 사과하겠다는 말에 백성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2:4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1 Samuel 12:4 "You have not cheated or oppressed us," they replied. "You have not taken anything from anyone's hand."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었고, 성막에서 자라나며 배운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엘리가 죽은 후 하나님의 사사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 선택은 과거를 넘고, 현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등 떠밀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등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더 이상 등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큰 일을 겪으셨고, 큰 실수를 하셨고, 그 큰 일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때 그 일은 ‘큰 일’이 아니라, 그냥 ‘사고’(그일)일 뿐입니다. 그냥 일어난(just happened)

사고, 그 일, 실수로부터 벗어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선택은 그 선택에 따르는 수고, 땀, 고통을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누군가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곱고려운 누군가를 만나야 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금방 방향을 바꾸며, 상황이 좋아지는 일은 좀처럼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기대하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혹은 용기 내어서 바꾸기로 선택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선택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결정과 내 선택이 좀 어설프고, 좀 모자라고, 혹 잘못된 선택이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삶의 방향을 선택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 선택을 했던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선택을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Mark 10:29 "Truly I tell you," Jesus replied, "no one who has left hom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e and the gospel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섬기기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

**10: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30 will fail to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in this present age: homes, brothers, sisters, mothers, children and fields—along with persecutions—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이 땅에서 100 배를 돌려 받고, 고난과 박해를 견하여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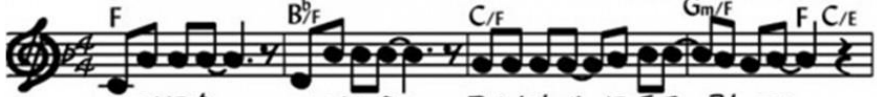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Claire Cloninger & Don Moen

I offer my life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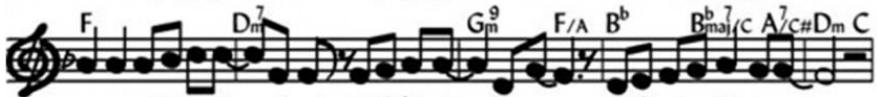
1. 나의 모습 - 나의 소유 - 주님앞에 - 모두 드립시다 -
2. 어제일과 - 내일일도 - 꿈과희망 - 모두 드립시다 -



모든아픔 - 모든기쁨 - 내 모든눈물 - 받아 - 주소서 -
모든소망 - 모든계획 - 내 손과마음 - 받아 - 주소서 -



나의생명을드 - 리니 주영광위 - 하여 - 사용하옵소서



내가사는날동 - 안에 주를찬양 - 하며 - 기쁨의제물 되리 -



나를받아주소 - 서 서 우리가건 - 이



모든것들 - 을 다 주께서우 - 리에게주소셨네 - 뭇백에드 - 릭것이



- 없으 - 니 내 삶을받아 - 주소서 서 -

Copyright (C) 1994 Juniper Landing Music. Adm. By CopyCare Kore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by All Nations Music. Approved by CopyCare Korea.

기도: 자기에게 맞는 기도 제목으로

- A. 나를 과거에 얽어 매고 있는 실수, 죄를 이제는 떨쳐버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 B. 또 여러분 중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 그 뒷처리를 해야 하고,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불편함과 고통 중에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내 잘못 아니지만,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지만, 기꺼이 내 일로, 내가 짊어질 짐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주께서 더 큰 상을 주실 겁니다.

- C.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선택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100 배를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시게 된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0.1. 사사 사무엘과 아들들, 사무엘상 7:15-8:3)

1. 지금도 나를 얽어 매고 있는 과거의 큰 일, 죄, 실수가 생각나십니까? 그 중 한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나와 듣는 사람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2. 돈에만 정신이 팔려 그릇된 삶을 살았던 요엘과 아비야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나의 삶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3. 현재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4.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평생 그 삶의 대가를 감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이며, 감수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삶과 대가를 위해 기도합시다.